| 불자 세상보기 |

내 옆 부처님께 귀 기울이자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지난해 사자성어 '君主民水' 처럼
민심 들끓었고 정권이 바뀌었다
배 바로 띄웠으니 무얼 해야하나

한 해를 돌아보며 모두 바쁘지만
잠깐 내려놓았던 인연을 되새기자

善緣도 惡緣도 모두 나의 부처님
그들에 귀 기울여야 세상 바뀐다
세상 변화했듯이 자기 삶도 변해야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성큼, 다음 해의 한 자락으로 숨 가쁘게 걸음을 옮기는 모양새의, 벌써 12월이다. 아직은 다 지나지 않은 올해, 지난해 12월에 선정되었던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 능히 배를 뒤집기도 한다.(君主人水, 水能載舟, 亦能覆舟.)"

당 태종의 정치철학을 묶은 책 〈정관정요(貞觀政要)〉의 '정치의 바탕을 논함(論政體)'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당 태종에게 직간(直諫)했던 신하로 유명한 위징이 당 태종의 전횡을 경계할 때 인용했던 고사에서 비롯된 사자성어가 '군주민수(君舟民水)'이기도 하다.

위징이 죽고 난 뒤에 태종은 '자신의 잘못을 경계하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라며 그를 기리는 비석을 세웠다. 하지만 위징이 자신에게 직간했던 글의 초고를 남긴 것을 알고는 크게 화가 나서 비석을 무너뜨렸다. 그 글들에 자신이 잘못했던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던 까닭이다.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난 뒤에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에, 후회하고 다시 비석을 세웠다는 일화도 전한다.

어쨌든 지난해 12월에 선정되었던 사자성어를 되새기기라도 하듯, 나라가 한바탕 홍역을 앓았고, 민심을 반영하듯 정부가 바뀌었다. 정부가 바뀌었으니, 바뀐 만큼 우리네 삶도, 우리네 생각도 바뀐 것일까? 혹은 물결을 바꾸어 배를 바로 띄워 두었으니, 선장에게 배를 맡겨놓고 팔짱을 끼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일까?

30여 년 전인 1986년, 종정이셨던 퇴옹 성철 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에 발표한 법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허공을 훨훨 나는 활발한 부처님들, 교회에서 찬송하는 경건한 부처님들, 법당에서 염불하는 청수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필자는 이 법어를 이렇게 풀이한다. '남의 나라 부처님도 귀중하고, 내 나라의 부처님도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내 옆에 계신 부처님은 더욱 소중합니다. 왜 당신 옆에 부처님을 외면하고 또 모른 척하십니까?' 라고 말이다.

연말이 되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느라고 다들 정신없이 바쁠 때다. 고마운 인연도 많고, 눈 부라린 인연도 많을 법하다. 고마운 인연은 고마운 인연이라서 나를 기다려 주지 않고, 눈 부라린 인연은 눈 부라린 인연이라서 나를 외면한다. 고마운 인연이든, 눈 부라린 인연이든, 다들 내 인연이고 내 부처님이다. 남의 곁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부처님이기에, 고맙기도 하고 눈 부라리는 사이이기도 하다. 그때 고마웠던 인연의 부처님께 눈 부라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눈 부라렸던 부처님께 지금은 고마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을 바꾸는 큰일도 좋고, 나라를 바꾸는 큰일도 좋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 세상을 바꾼 만큼, 나라를 바꾼 만큼 내 삶도 바꾸어 놓을 때다. 연말이라, 연초라서 바쁘다고 외면하지는 말자. 그렇다고 찾아가고 안부 묻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 삶에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내 삶의 부처님이신 조그만 인연들이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있는지 한번쯤은 하루 저녁쯤은 시간 내어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바꾸어주는 그들 바로 옆의 부처님들을 여전히 소중히 모시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이야기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내 옆의 부처님에게 귀 기울일 때까지. 바람이 많이 차다. 나를 아는 모든 부처님이 옷깃을 여미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나의 부처님과 당신의 하나님

연말이다. 이 시기가 되면 자의든 타의든 보게 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연예 관련 시상식이다. 그런데 불자들은 시상식을 보기가 꺼려진다. 기독교 연예인들의 '하나님 감사' 퍼레이드 때문이다. 국고와 세금이 지원되는 공공재인 공중파 방송에서 '하나님 감사'를 듣는 것은 가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2014년 한 방송국 시상식에서는 사회자 신동엽 씨가 진행 중 나서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절에 다니면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또 교회 오빠와 사귄다는 이야긴 들었어도 절 오빠와 만난다는 얘긴 못 들어봤다"며 "오늘 불자가 계시다면 부처님 이야기를 한 번 부탁드리겠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요즘 이야기 하는 '절 오빠, 절 언니'의 대중화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그럼에도 매년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에는 부처님보다는 하나님이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공중파 방송에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언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감은 예외였다.

영화 '아이캔스피크'로 제38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나문희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11월 25일 열린 영화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안고 이렇게 말하며, 수상 소감을 이어갔다.

"지금 96세이신 친정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반응은 센세이션 했다. 11월 2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메인 앵커인 손석희 아나운서는 앵커브리핑에서에서 나문희 수상소감을 직접 인용하며 "종교 화합의 멘트"라고 평가했다. 실제 대부분의 평가가 그랬다.

이후 한 연예매체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나문희 씨가 가진 신앙적 겸양이 엿보였다. 그녀는 '종교화합 수상 소감'에 대해 이렇게 털어놨다.

"어머니가 지금 제 나이에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지금도 신앙을 이어가고 계세요. 지금 그 신앙으로 제가 있을 수 있었고요. 반대로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부처님을 믿게 됐어요. 어머님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제가 좋아하는 부처님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신만 이야기하면 섭섭하니까요."

어머님을 위해 하나님에게 감사드렸고, 자신이 좋아하는 부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에서 대승불교의 가르침인 '자리이타(自利利他)'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대승불교에서는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완전하고 원만하게 수행한 이를 부처라고 한다. 보살이 자리이타의 길을 걸음으로써 성불하게 된다고 본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따라가는 보살의 마음. 어찌보면, 이 보살의 마음이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행동 가치일 것이다. 또한 보살의 마음에서 종교 화합과 상생의 길이 있을 것이다.

연말이다. 곧 예수께서 오신 날이 다가온다. 합장하고 보살의 마음으로 맞이해 본다. '당신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세상이 오길.'

社說

승가교육 포상, 인재불사 활력소 되길

어느 단체, 조직이건 사람이 모여 일을 이루기에, 참 사람을 키워내는 인재양성은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승단 또한 마찬가지다. 잘 키운 상좌, 재가의 열 자식 안부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젊은 스님은 불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자, 불법 전승의 핵심이다.

이런 중요성에 조계종이 종단 최초로 승가교육 발전에 헌신한 30년 이상의 원로 스님들에게 포상을 시행한다.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은 '수행가풍과 승풍진작'을 기치로 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취임 첫 날 포상 추진 계획을 지시해 이뤄졌다. 교육원은 교육 현장에서 도제양성에 매진해 온 스님들을 선별해 비구·비구니 스님 10명을 선정했다.

조계종은 출범한 해인 1962년 12월 제2회 임시중앙종회에서 '교육법'이 제정하며 승가교육의 단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포교대상,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출판문화상, 불교사회복지유공자 등으로 포교, 복지, 언론, 출판의 분야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반면 조계종 근간을 세우고 현대적인 승가교육과 종단이 있기 까지 공로를 세운 스님들에 대한 포상은 없었다.

이번 승가교육 포상제도 도입은 조계종 3대 지표 중 하나인 도제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순한 교육이나 은사와 상좌 스님간의 유대가 아닌 참 인재를 키워낸다는 점에서 이번 승려교육 공로자 포상은 불교 미래를 밝게하는 불사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이다. 출가자는 수행자의 본분사와 더불어 사회를 정확히 진단하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적 수행으로 이 시대 사회현상을 읽는 지혜와 중생들을 섭수는 자비심을 갖춘 참 스승들의 활약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세종시의회, 현명한 市政 펼쳐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예산 20억 원에 대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전액 삭감을 결정한 이후 세종시에 종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예산 삭감의 정확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아 일부 개신교 인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시의회가 적절치 못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모 시의원은 위원회 회의서 일부 개신교계의 주장을 답습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저버렸다. 해당 부지가 확대된 사유나 예산 지원 형평성 등은 이미 많은 자료로 검증된 내용임에도 뚱딴지 같은 주장을 일삼았다. 종교단체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준 사례와 이후 소유권을 특정 단체가 갖는 사례가 있는지 묻는 몰상식한 질문도 나왔다.

이는 문체부 전화 한 통으로도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게다가 이미 전국적으로 국비와 시도비 지원을 통해 건립되는 종교계 문화시설은 셀 수 없이 많은 데다 소유권 역시 자부담에 따라 해당 단체에 귀속된다는 내용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체부도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한 이후 이미 예산을 배정했고, 이춘희 세종시장 또한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제라도 한국불교문화체험관에 대한 억지주장을 펼치는 일부 개신교계 인사들과 지역언론은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포항시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길 바란다. '불교'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시정을 살필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